

베이벨리 국제심포지엄 기본구상

홍 원 표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wonpio@cni.re.kr

사 공 정 희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sun-road@cni.re.kr,

김 양 중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yj0509@cni.re.kr

김 진 영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jinyoungkim@cni.re.kr

이 과제는 베이벨리 프로젝트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일환으로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검토하여 국제심포지엄의 성격과 주제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목적 및 방법
2. 국제심포지엄 개최 관련 이슈 검토
3. 국내외 유사사례와 시사점
4. 국제심포지엄 방안

요약

- 베이벨리 프로젝트는 초광역 개발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추진 단계상 구상 수립 등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지도 상승을 목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적실함
- 국내외에 참고할만한 유사 사례로는 국내의 새만금 국제포럼, 중국의 웨강아오대만구,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관련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이 대표적이며, 추진 방식에서 언론사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짐
- 베이벨리 국제심포지엄의 컨셉을 중심으로 구분한 방안으로는 ① SDG 글로벌 리빙랩, ②동아시아 미래산업의 요람, ③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 등 방안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응한 세션 구상 등을 제안함
- 국제심포지엄의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공동 개최 여부, 베이벨리 특별법 등 정부 지원 여부, 기조강연자 섭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0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 충남도는 베이밸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내·외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구상하고 있음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2022년 9월 충남·경기도지사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2023년 충남 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음
 - 올해 6월에 충남·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베이밸리 공동비전 선포식 개최 예정임
 - 올 하반기부터 베이밸리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국제심포지엄 방식으로 베이밸리 프로젝트와 같은 초광역개발사업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초광역개발사업이라는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개발사업을 주제로 하는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것은 흔치 않으며, 개발사업은 투자유치설명회 등 방식을 통해 홍보 및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국제심포지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본 과제는 베이밸리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의 주제, 기조강연, 세션 구성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컨셉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심포지엄의 주제는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베이밸리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체성과 연관된 심포지엄의 주제를 탐색함
 - 기조 강연은 심포지엄의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기조강연의 내용과 주체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한편, 기조 강연 연계 세션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번 과제는 최종 결론으로 단일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제방안을 정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내고자 함
 - 이번 연구의 최종결과물은 국제심포지엄 관련 몇가지 유형의 방안 제시임
 - 이번 연구는 후보 방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기 보다는 각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여 심포지엄 행사 주최자인 충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결론을 제시하고자 함
 - 최종적인 판단과 심포지엄 구성 방안은 충남도의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 이번 과제의 연구 대상은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국제심포지엄이며, 심포지엄의 주제, 기조강연, 세션 구성 등을 핵심 검토 내용으로 함
- 연구 방법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문헌 조사를 보조적으로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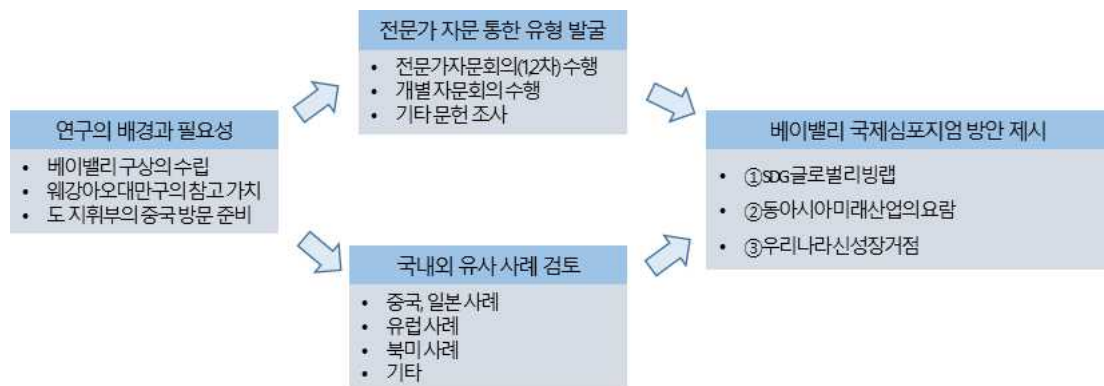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흐름도

- 본 과제를 의뢰한 충남도청 담당부서의 아이디어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를 시작
 - 충남도청 담당부서인 베이밸리개발팀(균형발전국)은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시행할 부서로써 관련 배경, 예산, 시기 등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다른 내용에 관해서도 초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
- 담당부서의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하여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분야를 이슈로 정리하고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 및 접근의 실마리를 탐색함
 - 주요 이슈로는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특징과 현 단계에 대한 판단, 국제적 의의, 충남도가 주최하는 다른 국제학술행사와의 차별성, 베이밸리 프로젝트 홍보수단으로서 국제심포지엄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를 검토함
 - 관련 의견은 전문가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이슈에 따라 재정리함

1.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 초보적 구상 개요

① 초보적 구상의 근거와 방향성

- 관련 초보적 구상은 도 담당부서인 베이밸리개발팀(균형발전국)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초보적 구상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당초 이 과제를 제안할 당시의 기본적 아이디어임
 - 초보적 구상은, 다양한 여건에 대한 암묵적 판단을 담고 있음
 - 초보적 구상은, 이번 과제를 거치면서 수정 변경이 가능함

② 국제심포지엄 개최의 배경과 목적

○ 올해는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해로 프로젝트의 홍보가 중요함

- 지난 2023년은 기본계획(구상)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으며, 올해 6월에 예정된 충남·경기 공동 비전 선포식은 프로젝트의 착수를 알리는 이정표임
- 현재 충남도민들은 베이밸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많은 사람에게 베이밸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함
- 베이밸리의 홍보를 목적으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구상함

○ 홍보의 수단으로서 국제심포지엄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함

- 지난 2월 충남도지사는 베이밸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했으며, 6월에는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공동비전선포식을 예정하고 있음
- 이러한 행사는 중요한 국내행사인데, 하반기에 동일한 국내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국제심포지엄이라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임
- 베이밸리 자체가 국제적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국제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심포지엄이라는 학술행사 방식은 비전선포식과 같은 격식있는 행사에 비해 행사준비 및 내용 전달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담을 것으로 기대함

③ 국제심포지엄의 주제와 세션 구성

○ 홍보 목적이므로 대중의 주목을 이끌 수 있는 주제 및 초청 인사 선정이 매우 중요함

- 홍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되므로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와 초청인사 선정이 관건적임
- 현재 충남도민들은 베이밸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많은 사람에게 베이밸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함

○ 주제와 세션 구성방향 및 내용에 관해서는 정립된 바 없으며, 본 과제의 중심 내용임

④ 행사 추진체계

○ 국제심포지엄의 주치는 충청남도 단독 개최를 가정하고 있음

- 국제심포지엄 개최 관련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요청한 없는 한 충남도의 단독행사 개최를 고려하고 있음
-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 행사이므로 경기도와 실질적인 공동주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관련 예산은 2억 원임
 - 관련실국(균형발전국)이 확보한 예산은 2억원 임
 - 예산의 지출은 행사용역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행사의 추진을 위해 행사용역사를 선정하여 행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 주최는 충남도청이고 주관사는 용역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행사 시기는 올해 11월 또는 12월로 예상함

2. 주요 검토 이슈

①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특징과 현 단계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특정 권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임
 - 충청남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공공성이 강하기는 하나, 동시에 개발사업은 정부재정 뿐 아니라 민간자본 투자 또는 참여가 성공에 필수적이므로 비즈니스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
 - 따라서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가장 특징적인 점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라는 점임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현재 구상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음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2024~2050년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 계획임
 - 2023년 기본계획(구상)을 연구하였고 올해 6월 충남·경기 공동비전선포식을 앞두고 있어 구상 단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임
 - 사업실행은 단위사업별로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므로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향후 1~2년간 실행준비단계에 있을 것으로 전망
- 현 단계에서는 베이밸리 프로젝트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중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함
 - 공공성과 상업성을 겸비하고 있으나, 상업성은 단위사업추진계획이 가시화되어야 부각될 수 있으므로 구상단계에서는 상업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님
 - 대중들의 베이밸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성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긴급
 - 단, 홍보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상업성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②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국제적 의의

- 베이밸리 프로젝트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면 그 글로벌 의의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물론 외국의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이 왜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하는지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만 국제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질 것임
 - 베이밸리 기본계획(구상)에서 이 부분은 언급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제시된 바 없으므로 본 과제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베이밸리 기본계획(구상)에는 글로벌 의의가 나와 있으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자국 중심적 접근이 강함
 -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 수행”은 기본적으로 중화권과 비중화권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또는 아산만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접근임
 - 이러한 자국 중심주의는 내부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호소력이 없음
 - 글로벌 의의를 갖추려면 보편적 가치를 담거나 또는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 기본계획(구상)은 곳곳에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화하여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담아야 함
-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글로벌 의의에 관해서는 “SDG”, “산업대전환” 등 키워드가 제시됨(전문가자문회의(1,2차))
 - SDG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가치로서 베이밸리는 이러한 SDG의 상당부분을 구현하는 내용을 이미 담고 있음
 - 산업대전환은 모든 국가·지역의 당면과제로서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을 핵심내용으로 함
- 베이밸리를 “SDG의 글로벌 리빙랩”으로 국제적 의의를 설정하자는 안이 있음
 - SDG는 17개 분야의 국제적 공동노력을 담고 있는데, 베이밸리 기본계획은 이 중 반수 이상에 관련된 계획을 담고 있음
 - ③번(Good Health and Well-being), ④번(Quality education), ⑦번(Affordable and Clean Energy), ⑧번(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⑨번(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⑪번(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⑬번(Climate Action), ⑭번(Life below Water), ⑰번(Partnerships for the Goals) 등은 베이밸리와 직접 연관이 있음
 - 특히, 산업화 된 지역의 SDG이므로 국제적인 매력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베이벨리를 “산업대전환 메카”로 국제적 의의를 설정하자는 안이 있음

- 베이벨리는 이미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이며 이러한 지역의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대전환은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을 것을 판단
- 베이벨리는 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지역임. 발전,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산업대전환은 대부분의 개발 동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특정 지역의 산업적 과제이기도 함
- 베이벨리는 또한 전기·전자, 미래모빌리티 등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서 산업대전환의 기초가 비교적 충실하게 갖추어진 지역임
-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은 흔치 않으며, 가령 새만금이나 네온시티는 허허벌판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인 반면 베이벨리는 팍차 있는 기존산업 집적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차이가 있음

○ 베이벨리를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로 의의를 설정하자는 안이 있음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사실상 국내 국민과 지역민에 대한 홍보가 핵심이지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록 외피는 국제심포지엄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행사로 컨셉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제안임
-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라는 국제적 위상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베이벨리의 신성장거점으로서의 도약은 나르매로 국제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아직 중앙정부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③ 충남의 국제학술행사로서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의 차별성

- 충남도는 현재 환황해포럼, 탄소중립·탈석탄국제컨퍼런스, 충남수소에너지국제포럼 등 세 건의 주요 국제 학술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은 이러한 국제 학술행사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함
- 기존 국제학술행사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 환황해포럼은 충남도가 주도하는 환황해권 지방정부의 종합적 정책 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방정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함
 -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는 도 주도의 지방정부 대표 기후환경 국제회의로서 국내외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창구역할에 해당함
 - 충남 수소에너지국제포럼은 충남도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외 수소에너지 정책과 최근 기술동향 공유 및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포럼임
-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과 기존 충남 국제학술행사와의 차별성은 “특정 지역 개발사업을 홍보하고 촉진하는 학술행사”라는 점에 있음
 - 타 행사들은 특정 지역을 특정하는 영역적(territorial)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역적(non-territorial) 또는 비공간적(aspacial) 의제를 다루는 반면,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은 명백하게 규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또한 베이밸리 프로젝트가 공공성과 상업성이 동시에 담겨 있는, 즉 비즈니스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이므로 국제심포지엄도 이러한 성격이 반영되는 것이 자연스러움

표 1. 환황해포럼 개최 현황

구분	주제	개최시기	개최장소	주최	주관
제1회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	2015.11.	롯데부여리조트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동아시아재단
제2회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지방정부의 역할)	2016.11.	공주아트센터 고마	충청남도	동아시아재단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제3회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	2017.11.	공주아트센터 고마	충청남도	동아시아재단 충남연구원
제4회	환황해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	2018.11.	롯데부여리조트	충청남도	동아시아재단 충남연구원
제5회	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	2019.10.	롯데부여리조트	충청남도	한반도평화포럼 충남연구원
제6회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	2020.10.	덕산 스피러스 리솜	충청남도	한반도평화포럼
제7회	글로벌 위기와 협력 그 리고 환황해의 미래	2021.10.	덕산 스피러스 리솜	충청남도	한반도평화포럼
제8회	해양을 중심축으로 환황해가 나아갈 길	2022.08.	보령 머드테마파크	충청남도	the OCEAN
제9회	해양문화관광의 대전환, 환황해가 연결하다	2023.09.	롯데부여리조트	충청남도	충청남도

표 2.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개최 현황

구분	주제	개최시기	개최장소	주최	주관
제1회	신기후체제의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2017.10.	예산 리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제2회	청정한 국민의 삶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2018.10.	롯데부여리조트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제3회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지역에서 세계로	2019.10.	예산 리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제4회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2020.09.	예산 리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제5회	탄소중립,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2021.09.	예산 리솜	충청남도	충남산학융합원
제6회	탄소중립 가속화 : 대전환과 도약	2022.09.	예산 리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제7회	탄소중립 : 지속가능한 전략과 기후리더십	2023.10.	예산 리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표 3. 충남 수소에너지국제포럼 개최 현황

구분	주제	개최시기	개최장소	주최	주관
제1회	수소경제사회와 지방정부의 역할	2016.12.	리솜스파캐슬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제2회	충남, 수소에너지를 말하다	2017.11.	아트센터 고마	충청남도	충청남도
제3회	수소에너지 현실화를 위한 과제	2018.11.	롯데부여리조트	충청남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4회	수소경제도약의 발판 “충남”	2019.11.	천안상록호텔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제5회	수소경제강국- 그 시작은 충남	2021.11.	에신스플라스리솜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제6회	탄소중립경제로 변화하는 힘센 충남, 수소에너지로부터	2023.10.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충청남도, 보령시	충남테크노파크

④ 베이밸리 프로젝트 홍보수단으로서 국제심포지엄 방식의 적절성

- 국제심포지엄은 학술행사로서 공공성을 담아내는 방식이며 상업성을 담아내는 행사로서는 투자설명회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용됨
 - 심포지엄 방식은 학술행사로서 주로 전문가 또는 관계자가 모여서 특정 주제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벌이는 장으로서 공공성을 담아내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의 홍보에 관련된 행사 형식은 투자설명회(IR)가 보편적임
 - 상업성을 중심으로 부각하는 방식으로 심포지엄 개최는 적절하지 않음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상업성을 부차적으로 하여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제심포지엄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담아내는 것이 적절함
 - 아직 프로젝트 추진체계가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업성을 올해 국제심포지엄에 담아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단,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대표하는 대규모개발사업(산업 인프라나 정주거점 조성)은 하나의 세션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 균형 유지 차원에서 필요함

3. 주요 이슈 검토의 시사점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국제심포지엄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함
 - 올해 국제심포지엄은 전 국민 더 나아가 전 인류가 공감하는 의제에 천착하여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장이 되어야 함
 - 현재 베이밸리 프로젝트가 구상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이행하는 시점에 있음을 고려하면 상업성을 내세우는 것은 일정한 리스크가 있음
-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국제적 의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산업화된 지역의 산업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of Industrialized area)”이라는 고유성을 공통으로 담고 있으므로 이를 국제심포지엄에서 일관되게 부각해야 함
 - 아산만권은 전력,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으로, 산업적 기반이 없는 곳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새만금개발이나 네옴시티와는 차별성이 있음
 - 즉 산업화된 지역의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을 축으로 하는 산업 대전환이라는 고유성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미래산업, 경제성장거점 등의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됨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이러한 산업 대전환을 정부 단위 또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은 충남의 다른 국제행사와 달리 개발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구체성을 담아내야 함
 - 개발사업은 물리적 계획이 두드러지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대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
 - 이를 위해 한 개 세션은 대표적 개발사업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손에 잡히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대표사업의 전체 공간 구상에서 점, 선, 면에 따른 배치로 설명해 내는 것이 바람직
- 베이밸리가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국제행사이기는 하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이제 구상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이행하는 시점에 있으므로 국민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이러한 국민적 인지도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국제심포지엄이라고 해서 국제적 인지도 상승을 중심에 놓을 필요는 없음

03

국내·외 유사 사례와 시사점

-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색하여 정리함
- 국외 사례로는 중국, 일본 사례가 많고 국내사례로는 새만금국제포럼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함

1. 국내·외 사례 검토

1) 한국 : 2011 새만금 국제포럼

① 개요¹⁾

- 회차 :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린 국제행사
- 일시 : 2011. 5. 31(화) ~ 6.1(수)
-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니볼룸(B1)
- 주제 : 동북아시아와 새만금(north-east asia & saemankeum)
- 부제 : 대한민국 새만금을 위한 21세기의 담대한 도전
- 참석 : 613명
- 주최 : 전라북도
- 주관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 후원 : 국무총리실, 6개 부처, 전북발전연구원

1) 출처 : 새만금 국제포럼 2011 「동북아시아와 새만금」 자료집

② 목적

- 한국의 새로운 성장산업 모색, 관광산업 발전방향과 중국투자자 관점의 새만금 경제특구 성공조건, 중국특화 전략을 위한 제도개선과 새만금특별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음
- ‘글로벌 투자를 이끌기 위한 새만금의 역할과 과제’의 발표 및 토론과 ‘G2로 부상하는 중국과 새만금의 비즈니스 기회’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음
-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만금의 발전 방향을 탐색,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와 민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함²⁾

③ 내용³⁾

○ 동북아시아의 성장과 One-Asia의 가능성 : 새로운 관점

-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동북아시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공동체의 건설이 논의되는단계에 이르렀음
-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단계를 넘어서 NAFTA, EU에 대응하는 ‘하나의 아시아(One-Asia)’에 대한 담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 ‘One-Asia’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와 역할을 갖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은 한국과 동북아시아 전체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동북아 경제성장과 새만금의 역할 : 새만금의 미래 모색

-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음
- 중국의 동해안 성장 도시들과 일본, 그리고 국내의 다른 서해안 도시들과 어떤 차별성과 발전목표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 새만금은 작게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발전 목표를 세워야 하고, 크게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를 위해 새만금은 내적으로는 조기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중국특화전략과 같은 강력하고 특화된 개발전략을 필요로 함

○ 새만금이 아시아의 경제특구가 되기 위한 필수적 제도 : 제도의 문제

- 새만금 개발전략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중국특구는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무역, 비즈니스 등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최적화된 경제적 공간을 의미함

2) 출처 : 전복, '2011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브레이크뉴스 전북판 - <https://j.breaknews.com/328>

전북발전연구원(2011) 이슈브리핑-새만금사업 20주년 기념 2011 새만금 국제 포럼 1부.

3) 출처 : 새만금 국제포럼 2011 「동북아시아와 새만금」 자료집

- 즉,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원하는 외국 투자자와 이를 유치하기 위한 중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
- 장기적으로는 무비자, 무제한 외환거래 등과 같은 특단의 제도가 필요하며, 새만금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 목표임

○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 경제특구의 성공조건 : 투자자의 관점

- 마지막으로, 새만금 경제특구 및 중국특구는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필요함
- 새만금 개발이 성공하고 동북아 경제협력 과정에서 의미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비자문제, 영주권문제, 외환거래 등의 현행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함
- 또, 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해 면세점의 설치와 카지노 설립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정리가 필요함

○ 특별초청 : 새만금 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한 리조트 카지노의 필요성

- 최근 세계 관광산업에서 최고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싱가포르 마리나샌즈사의 사례를 소개하고 새만금이 관광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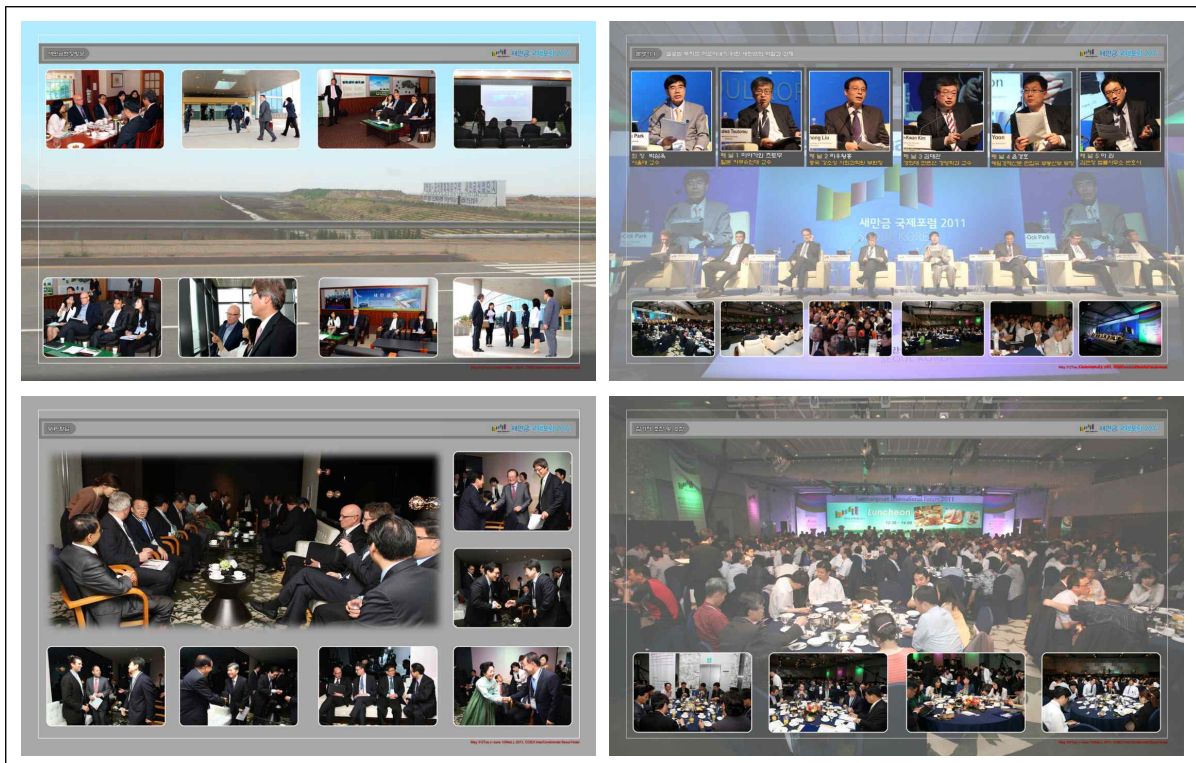


그림 4. 「새만금 국제포럼 2011」 주요행사 사진

출처 : 새만금 국제포럼 2011 「동북아시아와 새만금」 자료집

표 4. 새만금 국제포럼 2011 주요 프로그램

구분	소요시간(분)	연사 및 발표내용
개막행사 (07:30~07:50)	개회선언	2 이연택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홍보영상	6 새만금 홍보 동영상 상영
	개회사	4 강현욱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4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
	내빈소개	4 국회의원
기조연설 (07:50~08:50)	기조1	30 대한민국의 미래, 아시아를 향한 새로운 메시지로써의 새만금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기조2	30 동북아 경제협력 기지로서 새만금 발전전략 : 제도와 정책의지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월드와이드 선임상담가)
조찬 (08:50~09:30)	40	조찬 및 Coffee Break
본행사 등록 (09:30~10:00)	30	본행사 등록
본행사 I (10:00~12:30)	글로벌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만금의 역할과 과제	
	발표1	30 최근 세계경제상황과 한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의 모색 *롤랜드 빌링어 (맥킨지&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발표2	30 글로벌 금융상황과 새만금의 국제적 개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Jr. (트럼프그룹 수석부회장)
	기획초청	30 새만금 선도사업으로서 관광산업의 방향모색 *조지 타나시에비치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임시 최고경영자)
	토론	좌 장 : 박삼욱 (서울대 교수)
		패널1: 미야가와 츠토무 (일본 카쿠슈인대 교수)
		패널2: 리우왕홍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패널3: 김대관 (경희대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
		패널4: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부동산부 부장)
		패널5: 이 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찬 (12:30~14:00)	90	오찬 및 휴식
본행사 II (14:00~16:00)	G2로 부상하는 중국과 새만금의 비즈니스 기회	
	발표1	30 새만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발표2	30 중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 경제특구 성공조건 *후무칭(胡木清)(상해창의상품개발센터 대표)
	토론	한·중 경제협력과 새만금 중국특화 전략
		좌장 : 이남식 (전주대 총장)
		패널1: 제임스 맥그리거 (APCO 월드와이드 선임상담가)
		패널2: 신광용 (중국 남개대 교수)
	토론	패널3: 리롱난 (법무법인 씨엘 중국 변호사)
		패널4: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출처 : 새만금 국제포럼 2011 「동북아시아와 새만금」 자료집.

표 5. 새만금 국제포럼 2011 주요 정책과제

구분		제안내용	제도개선 사항	관련부처
기조연설	곽승준	○새만금은 세계적인 제조 체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새만금은 세계적인 최장 방조제, 변산반도 등 최적의 관광·레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복합레저	문화부
	제임스 맥그리거	○서울과의 거리단축 필요: 국제공항 필수 ○미국의 미션힐즈 같은 골프장 필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설치 ○한·미 FTA는 중국인의 투자기회 ○삼성투자협약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촉진제 역할	국제공항 골프장 카지노	국토해양부 문화부 문화부
본행사1	롤랜드 빌링어	○새만금은 녹색성장분야와 하이테크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산·학 연결고리가 잘 갖춰져야 함 ○본 포럼을 초국경적초학제적 포럼으로 발전시킬 필요	산·학 협력제제 포럼지속 개최	교과부 국무총리실
	도널드 트럼프jr	○두바이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실감과 다양성 유지해야 함 ○새만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브랜드 홍보 필요 ○서울과의 거리단축 - 공항, KTX 필요	브랜드홍보 공항, KTX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조지타나 시에비치	○복합리조트카지노 설치가 새만금 사업 성공조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내국인 출입허용 시설로 설치 ○카지노 성공을 위해 공항과 엔터테인먼트 시설(면세점 등) 필요	복합리조트카지노 (내국인출입가능) 면세점	문화부 법무부
토론1	박삼욱	○새만금은 혁신, 네트워킹, 경쟁이 중요 ○새만금은 세계 타특구와 차별화 필요	차별화	국무총리실
	미야기와 초토무	○새만금을 R&D와 첨단기술 거점화	R&D거점	지경부
	리우왕훙	○강소성과의 문화, 스포츠교류 활성화 ○강소성 연해지구·새만금개발 개발계획간 국제포럼 개최 제안	포럼개최	국무총리실
	김대관	○새만금에 통합리조트카지노 필요 -한국인의 출입 허용되어야 ○관광객 유치 위한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 개발 필요	카지노 복합레저	문화부 문화부
	윤경호	○선택과 집중 필요 -특히 중국 빈하이신구와의 차별화 필요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형태의 조직 설치 필요	개발전담기구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이 권	○새만금에 자본과 사람이 같이 들어오므로 외국인 병원 건립 필요 ○적절한 투자논리와 세제혜택이 있어야 함	외국병원 건립 세제혜택	
	이병국	○새만금개발전담기구는 가장 적합한 유형을 검토 중임		
본행사2	제프리 존스	○FTA는 중국인에게 매력적인 요소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내국인 기업유치가 선행되어야 함 ○객관적 입장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 ○새만금 영문발음 어려움: Saemangeum→Semangum 변경	경제성조사 영문표기 변경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후무칭	○중국 빈하이 신구와 비교하여 장점이 있어야 함 ○중국투자 유도를 위해 “관시”가 중요하므로 한중교류 활성화 ○서울과의 거리단축 위한 인프라 구축 ○중국인을 위한 비자 특별 통로 설치 ○한국의 노사관계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외국인노동자 고용조건 완화 필요	인프라 무비자	국토부 법무부 법무부
종합토론	제임스 맥그리거	○ 새만금 발음이 어려움 ○ 친숙한 브랜드화 작업 필요	브랜드화	국무총리실
	신광웅	○ 새만금 전체적 관리를 위해 특구관리청 같은 집행기구 필요	개발전담기구	국무총리실
	리롱난	○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필요	세제혜택	기재부
	이병국	○ 본 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MP에 반영 ○ 행정구역문제, 환경문제도 대응적 차원에서 해결 필요		
	이남식	○ 무관세, 세금감면 필요 ○ 비자문제 해결 필요 ○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검토 ○ 외국인 의료요건 개선 ○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유치 유도	무관세 무비사 영주권 외국병원 한상대회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지경부 지경부

출처 : 새만금 국제포럼 2011 「동북아시아와 새만금」 자료집.

2) 중국

① 웨강아오대만구(GBA) 개발을 둘러싼 국제행사

○ 개요

- 웨강아오대만구와 베이펄리는 규모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 동급 비교 대상은 아님
- 웨강아오대만구는 면적이 55,904km², 인구는 약 7천만 명이고, 베이펄리는 면적은 4,379km², 인구는 320만명으로, 웨강아오대만구가 베이펄리의 10배 이상임
- 웨강아오대만구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이며, 인구는 더 많으므로 단순 비교는 무리임
- (국토위상) 경제중심지 관련 지리적 상대지위와 대외관문 보유 등을 중심으로 비교함
- (산업위상) 다양한 개별개발구 각각의 속성 구성 형태와 주력산업 특화 수준을 비교함
- (관리체계) 관련 개발구 관련 중앙정부 지원과 다수의 개발구 관리체계를 비교함

〈웨강아오대만구 계획 개요〉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주강삼각주의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이자 베이지역임
- 웨강아오대만구를 처음 언급한 것은 2016년 1월 30일 광둥성 12기 인민대표대회에서 4차 회의 심의를 통과한 「광둥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요강임
- 2017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의 협력 심화 및 대만구 도시군 발전계획을 연구 제정할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만구 개념을 논의하기 시작
- 2019년 2월 중국 국무원은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웨강아오대만구 발전규획 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를 발표
- 지리적으로 광둥성 9개 도시,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며, 중국에서 가장 경제가 발달한 권역 중 한 곳임
- 면적은 56,098km², 인구는 8,662만 명임
- 전체 GRDP는 19,435억 달러, 일인당 GRDP는 22,585달러임
- 수출액은 13,414억 달러임

그림 1.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



자료: HKTDC(2019. 2. 20),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표 1.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주요 지표(2022년)

지역 구성	광둥성 9개 도시, 홍콩, 마카오
면적(km ²)	56,098
인구(만 명)	8,662
전체 GDP(억 달러)	19,435
1인당 GDP(달러)	22,585
수출액(억 달러)	13,414

자료: HKTDC, Statistics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ttps://research.hktdc.com/en/article/MzYzMDE5NzQ5>

표 8. 베이밸리와 웨강아오대만구 현황 비교

구분	웨강아오대만구	베이밸리
지역구성	광둥성 9개 도시, 홍콩, 마카오	충남도 4개 시, 경기도 4개 시
면적(km ²)	55,904	4,379
인구(만 명)	6,958	320
GRDP(억 달러)	15,124	1,569
일인당 GRDP(달러)	21,750	43,656
수출액	10,901	1,397

○ 웨강아오대만구 청년발전 포럼

- 홍콩의 링난대학이 주도하는 포럼임



출처 : 김홍원, 2019, “중국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과 전망”, KIEP기초자료(19-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웨강아오대만구 녹색발전과 디지털혁신 포럼

- DBS은행이 선전시에서 “2021웨강아오대만구 녹색발전과 디지털혁신 포럼”을 주관함
- GBA의 빠른 융합과 발전에 따라 DBS은행은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화혁신과 지속가능발전에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음



출처 : 김홍원, 2019, “중국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과 전망”, KIEP기초자료(19-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웨강아오대만구 기업가 포럼(2023)

- 홍콩중문대학(선전)(香港中文大學深圳, 선전고등금융연구원, 단결홍콩기금, 중국국제무역촉진 위원회심천위원회, 대만구기업가연맹, 선전시선강합작혁신연구회가 연합 개최함
- 사회각계의 관심을 모으며, 300명의 웨강아오 세 지역의 정부부문 대표, 공상계, 저명학자들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참가자 수는 233만 명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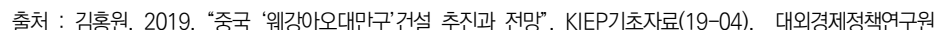
○ 웨강아오대만구과학포럼(2021)

- 대만구과학포럼大灣區科學論壇(Greater Bay Area Science Forum, GSF)은 일대일로국제 과학조직연맹이 발의하였음
- 광둥성인민정부, 광저우시인민정부, 광저우난샤개발구관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포럼으로 포럼의 집행조직은 광둥성링산포럼과학센터임



출처: 김홍원, 2019, "중국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과 전망", KIEP기초자료(19-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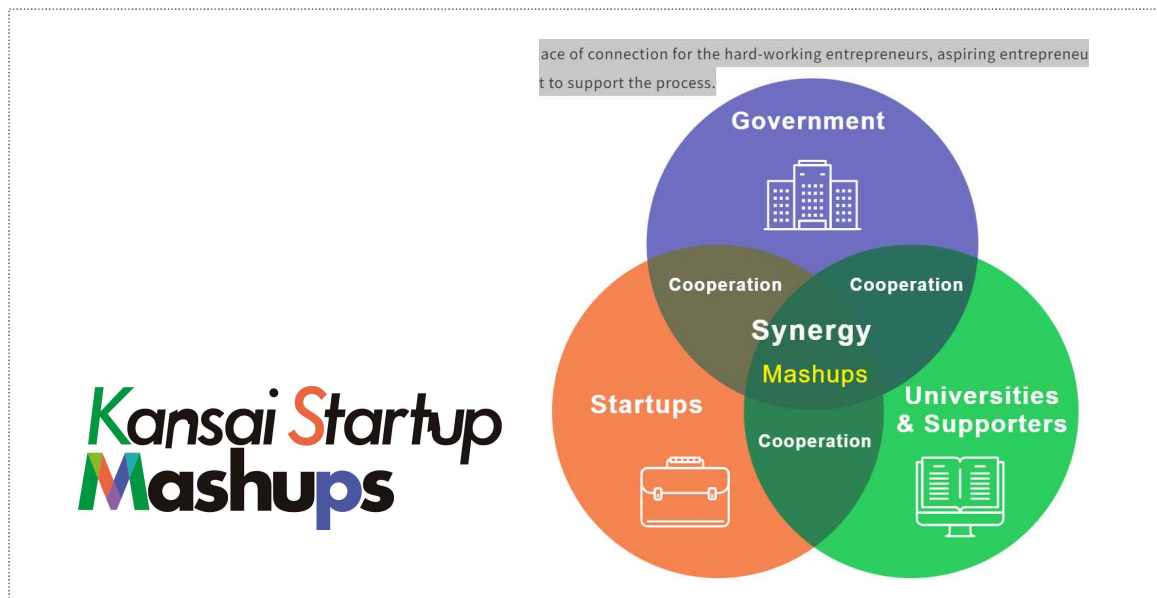
○ 정식명칭은 “Global GBA Forum”임



2) 일본

① 간사이 스타트업 매쉬업스

- 교토, 오사카, 고베 등 세 도시는 오랜 기간 축적한 첨단기술과 창의성을 엮어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간사이 스타트업의 새로운 생태계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음
- 간사이 스타트업 매쉬업스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세계에 알리는 브랜드 메시지임
- 세 도시는 대학, 기업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과 지원의 연계망을 만들고자 하며, 간사이 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그 존재감을 촉진하고 첨단기술과 글로벌 지혜를 교환하여 스타트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함



<https://www.zeri.jp/cen/news/2024/01/24/3542/>

②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추진 심포지엄

- 후쿠오카현에는 10,000kW 이상의 출력을 가진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가 14개소임
- 미야마시, 무나카타시, 이토시마시, 아사쿠라시가 '지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을 창출하고 지역 순환형 에너지를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바이오매스 산업을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지역'인 '바이오매스산업도시'로 인정됨

- 2019년에는 환경성 굿 라이프 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시내 관련 시설의 CO2 배출량을 48.4% 삭감하는 데 성공함
 - 사례발표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바이오매스 사업의 과제와 향후전망을 토론했음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추진 심포지엄〉

- (1) 명칭: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추진 심포지엄 일시
- (2)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4:30 ~ 18:10
- (3) 장소: 히비야 도서관 문화 센터 (도쿄도 치요다 구) / 온라인
- (4) 주최: 일본 유기 자원 협회
- (5) 참가비: 무료
- (6) 내용: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최신 정책 동향과 대처 사례를 널리 보급 및 홍보하고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의 보급을 촉진하고 바이오 매스 사업을 둘러싼 과제와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제1부 강연 및 사례 보고】

- 기조 강연
 -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것"
(교토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모로토미 토오루 교수)
- 사례 보고
 - 홋카이도 시카오이초
 -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바이오가스과
 - 홋카이도 히라토리초
- 공개 토론회 "바이오매스 사업의 과제와 향후의 전망"
 - 미노루 카츠토시 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추진협의회 회장, 홋카이도 고베초 시장

<https://www.zeri.jp/cen/news/2024/01/24/3542/>

③ 고베 의료산업 도시 심포지엄

- 1998년 지진 부흥 사업으로 구상된 이래 25년이 흘렀고, 36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있는 일본 최대급의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성장함
-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현재 고베 의료산업 도시의 미래 비전을 연구함
- 고베 의료산업도시 심포지엄은 고베 의료산업도시의 지금까지의 대처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기회임
- 바이오 의료산업육성과 도시의 미래라는 킬러아이템을 확보함

〈고베 의료산업 도시 심포지엄〉

- (1)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4:00~16:00(접수 시작 13:30)
- (2) 장소: 고베시 주오구 가노초 4-2-1 고베 산노미야 한큐 빌딩 ANCHOR KOBE 15층
- (3) 형식: 하이브리드 (현장 50 명, 온라인 전달 가능)
- (4) 프로그램 내용
 - 고베 의료산업도시 소개
 - 기조 강연 "생체모방 시스템을 이용한 차세대 신약 개발 모델 개발"
 - 패널 토론 : 고베 의료산업시의 지금까지의 대처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 (5) 참가료: 무료
- (6) 주최: 고베시, 고베 의료산업도시 추진기구

<https://www.city.kobe.lg.jp/a89323/press-iryosangyo/202402/466636010180.html>

3) 미국

① Texas Municipal League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 텍사스주 Municipal League가 연말에 매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
- 경제 개발 전문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전략 등을 공유함
- 텍사스 전역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연구와 새로운 모범사례 등을 공유함

② Illinois EV Industry Day(전기차 산업의 날) 국제행사

- 일리노이주의 산업 활성화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포럼임
- 성장하고 있는 EV 산업기업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일리노이주가 어떻게 계속해서 EV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지 논의함
- EV 회사와 파트너(협력업체)를 일리노이주에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함⁴⁾

※ Intersect Illinois

4) <https://www.intersectillinois.org/news/ev-industry-day-2024-recap-and-photos/>

- 산업계, 학계, 주정부가 협력하여 일리노이를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장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협력체임
-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 리소스 및 서비스를 제공함
 - * Illinois EV Industry Day를 공동 개최하였음
 - Intersect Illinois는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함
 - * Industry Day는 이러한 활동 중의 하나임



출처 : <https://www.intersectillinois.org/news/ev-industry-day-2024-recap-and-photos/>

2. 유사사례 시사점

① 개발계획 초기에는 홍보를 위한 단발성 행사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후에는 특정한 주제를 가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개발계획 실행 초기단계에서 개발계획을 알리는 일환으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임
 -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 관련 다양한 국제행사나 새만금 국제포럼 등은 실행 초기단계에서 개발계획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계획 자체를 알리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그 컨셉에 따른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그 국제행사의 유형도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행사뿐 아니라 박람회(새만금 사례), 스타트업투자자매칭(간사이 사례) 등 다양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 올해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은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
 -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서 활용하되, 국제심포지엄이라는 형식에 걸맞은 주제와 세션구성이 필요함
 - 올해 국제심포지엄은 매년 개최하는 것을 정하지 말고 단발성으로 기획하는 것이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② 개발계획 관련 의사결정 책임자들이 모이는 회합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학술행사일 필요는 없음

- 웨강아오대만구 관련 “서미트 회의” 사례는 각론에 해당하는 다른 국제행사에 일종의 큰 우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서미트 회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이는 행사로 관련된 국제행사 중 가장 권위 있고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로 자리 잡음
 - 그 행사성격은 학술행사가 아니라 정치행사 성격이 강함
- 베이밸리프로젝트도 충남도지사, 경기도지사, 민간 대표, 중앙정부 관료 등이 참여하는 (가칭)“베이밸리 정상 회의”를 구상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 충분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충남도지사, 경기도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 민간업체 대표, 중앙정부 관료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행사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베이밸리 프로젝트 추진 관련 민관파트너십 구성이 전제되어야 함

○ (가칭)“베이밸리 정상 회의”는 반드시 학술행사 방식일 필요는 없음

- 웨강아오대만구 정상회의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 수장이나 중앙관료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학술행사의 성격은 아님
- 행사 방식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성격에 따라 창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학술행사로 치를 필요는 없음

③ 지방정부 주도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언론사, 금융기관 등이 주최하고 지방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추진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국제심포지엄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력 언론사가 행사개최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웨강아오대만구 사례를 보면, “서미트 포럼”은 주요 민간은행이 주관하고 있으며, 금융 관련 포럼도 은행이 관여하고 있음

○ 베이밸리 국제심포지엄은 금융기관보다 언론사가 주관하는 것이 홍보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능하면 중앙일간지가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이상적으로는 중앙지가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선택으로는 관련 프로그램에 중앙 일간지 주필이나 논설위원이 참여하여 기사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④ 국제심포지엄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보편적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계획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야만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을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암묵적 지원이나 관심을 획득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디지털전환, 산업대전환,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합의하는 방향에 베이밸리 프로젝트를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 자국 위주의 글로벌 의의 설정은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데 불리하며 외국 자본과 기업의 유치에도 불리함

○ 베이밸리의 글로벌 의의나 가치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포지셔닝이 필요

-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의 위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 of highly industrialized area) 등과 같이 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함
- 베이밸리의 고유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

04 국제심포지엄 방안

- 문헌검토와 전문가자문회의의 결과를 참고하여 베이벨리 국제심포지엄 개최방안을 컨셉 기준으로 ①SDG 글로벌 리빙랩, ②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③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각 컨셉에 따라 행사의 목표, 대상, 주요 연사, 세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단, 이러한 구분은 이상형(ideal type)에 가까우므로 상호 혼합 및 절충 가능

구분	방안1	방안2	방안3
컨셉	SDG의 글로벌 리빙랩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
국제심포지엄의 목표	글로벌 잠재적 관여자의 관심도 향상	프로젝트의 국제 인지도 향상	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보
대상	글로벌 잠재적 관여자	제반 오피니언 리더	국내 정책결정 관련자
주요 연사	UN기관 또는 글로벌 금융기관 인사	저명 미래학자	국내외 저명 학자
세션 구성	①임팩트 펀드 ②대기업 ESG ③주요사업(대기업 참여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또는 창업생태계)	①에너지, 용수 문제에 대한 비전 ②반도체, 모빌리티 산업의 확장 ③대표 거점개발사업	①국가 의제와 베이벨리의 역할 ②베이벨리 특별법 ③유사 국외 사례(웨강아오대만구, 간사이 이노베이션)
비고	준비위원회에 전문인력 참여 필수적	공간개발 개념의 구체화 필요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에 대한 가늠 필요

1. 국제심포지엄의 3가지 컨셉

1) 컨셉 1 : SDG 글로벌 리빙랩

① 의의 : 지속가능성편집 테스트베드 또는 리빙랩

- 베이밸리 지역은 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다배출업종이 집중되어 있으며, 첨단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등도 입지한 지역임
- 세계적으로 이렇게 온실가스다배출업종이 몰려 있는 지역은 흔치 않으며 이러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유럽의 대다수 지역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의가 있음
- 베이밸리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제시해야만 국제사회 및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
- 경기도를 제외한 충남지역만 대상으로 해도 이러한 정체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

② 초청인사: UN기구 또는 글로벌금융기관 인사 활용

-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베이밸리 글로벌 의의 천명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UN기구 또는 글로벌금융기관의 인사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것이 적절함
 - 지금까지 베이밸리는 국제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적으로 알릴 홍보의 기회임
 - 글로벌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UN기구나 글로벌금융기관(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인 기관)의 인사를 기조강연자로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조강연자의 지명도에 따라 중앙공무원, 역내대기업들의 참여자가 결정될 것임

③ 세션 구성

- 펀드, ESG, 정주 또는 창업생태계 등으로 세션을 구성하면 좋을 듯함
 - 임팩트펀드(Incubation Fund)를 글로벌 금융기관 + 연기업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임
 - 대기업의 ESG경영을 연결고리로 하여 역내 대기업을 참여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주거점 조성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션 또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 물리적 개발을 통한 가시적 성과나 드러날 수 있는 세션을 구성하여 단기적 성과도 도모해야 함

④ 기타: 별도의 준비위원회 구성

- UN기구나 글로벌금융기관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조직이나 용역사에 업무를 맡겨서는 역부족일 수 있음
 - 펀드, ESG, 개발, 분야에 영향력 있고 도움이 되는 인사들로 준비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⑤ 코멘트(2차전문가자문회의)

- ‘SDG 글로벌 리빙랩’은 에너지, 수자원 등을 중심으로 그 세계적 의의를 어필하는 공세적인 안으로 베이밸리 위상을 높이는데 이상적이나 실현가능성은 불확실함
 - 여건상 UN기구나 글로벌금융기관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지는 확신이 없음
 - SDG를 공통분모로 캘리포니아, 네옴시티 등과 연계한 글로벌 연합 혹은 동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모색 필요gka
 - 이 방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해상풍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컨셉 2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① 의의: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산업을 기존 주력산업, 앞으로 계속 끌고갈 산업, 새로운 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있음
 -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도 방법임
 - 한편, 산업군에 대한 내용과 공간적 내용(충남이라는 광역경제권에 주는 영향)을 나누어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임
- 탄소중립 등 에너지산업을 앞세우고 반도체·모빌리티 산업의 확장성 문제(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경기도 중심의 반도체산업이 충남으로 확산하는 것은 필연적), 이를 위한 지역 산학연체계 혹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초청연사 :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 같은 미래학자가 적절

-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 같은 미래학자가 바람직하며, UN의 미래학자(UN

미래보고서 2050 책 저자 중 한 명) 등이 연사로 오는 것도 고려함

- 한편, 중앙지 언론인 1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기조강연과 토론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함

③ 세션 구성

- 기업에게 미래에 중요한 인프라는 에너지와 물인데, 이에 대한 해답을 심포지엄에서 제시해야 흡인력이 있을 것임
- 구체적인 대표 플래그십 개발사업을 자세하게 제시해야 관심을 끌수 있고 청중들에게 무언가 진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특히, 선 개념과 점 개념을 연계하여 벨트 개념과 거점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④ 기타: 구체화된 공간 개념도 필요

- 베이밸리 전지역 또는 충남지역을 관통하는 벨트나 라인을 설정하고 그 결절로서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그 역할을 제시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볼 만 함
 - 가령 반도체수출의 핏줄 속에서 물류해상도시를 지정하고 개발한다는 컨셉 등이 있음

⑤ 코멘트(2차전문가자문회의)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은 현재 여건에서 반발짝 나가는 방안으로 글로벌 차원의 주목을 받기는 어려우나 현실가능성이 있음
 - 핵심 키워드를 ‘산업’에 두는 방안이며, 베이밸리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맥상통
 - 베이밸리는 새만금과 달리 기존 주력산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산업고도화와 신산업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 프로젝트라는 어필을 할 수 있음
 - ☞ ‘SDG글로벌 리빙랩과 유사한 맥락
- UN기구나 글로벌금융기관보다 저명한 미래학자를 섭외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초빙 가능한 기조 강연자는 토마스 프레이(Thomas Fray), 도미니크 포레이(Dominique Foray) 등을 거명할 수 있음
 - RIS3.0,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등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기반의 산업혁신에 중점을 두는 시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기조강연을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p>토마스 프레이 (Thomas Fr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다빈치연구소의 전무이사이자 미래 연설 학자 - 현재 구글의 최고 등급 미래학자 연사 - NASA, IBM, AT&T, 휴렛패커드 등 포춘지(Fortune) 100개 기업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강연 -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로서 15년을 IBM에서 보냈고, IBM이 발행하는 270개 이상의 상 수상 - 과거 美 최고 IQ클럽 트리플 나인 협회(High I.Q. society 99.9) 회원 - <미래와의 대화> 저자이자 '미래학의 아버지'라 불림
<p>도미니크 포레이 (Dominique For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 - 루미에르리옹2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 OECD에서 경제연구자로 근무(1993~2004) - 현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PFL) 혁신경제경영학부 정교수 - 2007년부터 '성장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Growth)'이라는 유럽위원회(EC)의 전문가그룹 팀장을 맡고 있음 - <지식 경제학(Economics of Knowledge)>(2000), <스마트특화(Smart Specialization)>(2015) 저자

3) 컨셉 3 : 대한민국 신성장거점

① 의의: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제심포지엄이기는 하나 국내 홍보용이므로 이에 부응하는 정체성을 부각시켜야 함
 - 기본계획(구상)에서 베이비밸리를 "우리나라 신성장거점"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 신성장 관련 산업 발전계획을 핵심으로 끌고 가야 하며, 교통 등 인프라 역시 주요하게 주목 끌 수 있는 프로젝트 분야임
- 산업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베이밸리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
 - 국제심포지엄은 홍보용이므로 국민·주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초청연사 : 미래학자가 적절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컨셉과 동일하게 미래학자 초청, 기조강연 요청이 무난함

③ 세션 구성

- 국가 의제와 베이밸리의 역할 등을 통해 국가 미래에 베이밸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리수 있도록 함
- 베이밸리 특별법과 같은 사안도 세션을 구성하여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음
- 웨강아오대만구, 간사이이노베이션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설파할 수 있음

④ 기타: 베이밸리 특별법 가능성 사전 판단 필요

-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직접적 성과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있음
 - 정책, 재정 등 지원 이외에 법률적인 지원 여부도 베이밸리의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세션의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⑤ 코멘트(2차전문가자문회의)

- ‘대한민국 신성장거점’은 사실상 국내 홍보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베이밸리 특별법 등 제도적 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심포지엄을 활용하는 시각임
 - 베이밸리 초기단계에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활용하는 방안임
 - 행사의 목적이 사실상 국내 홍보이기 때문에 국제심포지엄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는 않으나 국제심포지엄이라는 명칭 사용이 국내 홍보에 유리한 측면도 있으므로 폐기할 필요는 없음
 - 웨강아오대만구(중국), 간사이 광역연합(일본)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사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 방안 간 비교⁵⁾

- 비교 차원을 합목적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함
 - 합목적성은 베이밸리의 홍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
 - 파급력은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의미

5) 비교 작업은 외부 전문가 자문 및 내부연구진 논의를 결합하여 수행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청취하여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간의 제약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참고하고 내부연구진이 종합적으로 비교 수행 및 작성

- 시의성은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현 여건에 조응하는 정도를 의미
- 실현가능성은 행사 준비의 용이성을 의미

① 합목적성 측면 비교

- 세 가지 방안 모두 기본적으로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나, 세부 비교를 위해서 홍보의 대상과 매체의 구분이 필요함
 - 세 방안 모두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
 - 세부 비교를 위해서는 국제심포지엄 직접 참여자, 일반 대중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 홍보의 매체 등도 글로벌, 국가, 지방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
- 홍보의 대상은 일반 대중, 홍보 매체는 국가 차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실함
 - 국제심포지엄의 홍보 목적을 "일반 국민이 베이벨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또는 "국민 대중 속에서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실함
 - 이 관점에서 보면, 국제심포지엄은 비록 국제행사이기는 하나 홍보 대상은 국내 일반 대중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전반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방안이 가장 부합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은 프로젝트의 국내적 의의뿐 아니라 국제적 의의를 아울러 국가 차원의 의의를 강조하는 포지셔닝으로 평가됨
 - 'SDG의 글로벌 리빙랩' 방안은 국제적 의의를 강하게 부각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직접 홍보대상으로 하는데, 국민 대중에게는 체감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음
 -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방안은 현안을 다루는 인상이 강하며 자칫 전국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이유로 축소될 우려가 있음
- 다만, 홍보 매체의 측면에서 보면 'SDG의 글로벌 리빙랩' 방안은 그 신선함으로 인해 전문가그룹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이 있음
 - 'SDG의 글로벌 리빙랩' 방안은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방안으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컨셉은 언론 매체에게도 소구력을 가질 수 있으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② 파급력 측면 비교

- 파급력은 “산업화된 지역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of industrialized area)”이라는 베이벨리의 속성으로부터 연유함
 - 아산만권은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이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등 대전환으로 이행하는 것이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핵심임
 - 이런 측면에서 베이벨리 프로젝트는 국내의 새만금 개발이나 국외의 네옴시티(Neom City) 등 사례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국제심포지엄의 파급력 또한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파급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파급력은 그 파급력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
 - 파급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파급력이 전달되는 지리적 범위를 지역, 국가, 글로벌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시간적 파급력은 세 방안 모두 장기적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세 방안 모두 향후 30년간에 걸쳐 파급력을 갖는 컨셉으로서 장기적 파급력을 갖고 있으므로 시간적 파급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공간적 파급력은 ‘SDG의 글로벌 리빙랩’,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 세 방안 순으로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SDG는 글로벌 의제로서 ‘SDG의 글로벌 리빙랩’은 전 지구적 소구력을 가지고 있고, 왜 서양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베이벨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는 관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함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은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성격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중화권과 비중화권의 가교 역할’이라는 지역의 위상과도 연관이 있음
 -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은 국내 미래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베이벨리에 부여한 것으로 시야는 주로 국내에 집중되어 있음

③ 시의성 측면 비교

- 시의성은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현 단계 여건에 조응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것으로, 제시한 컨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외 여건의 성숙도를 의미
- ‘SDG의 글로벌 리빙랩’은 매우 선도적인 컨셉이기는 하나 시의성은 낮게 평가됨
 - 베이벨리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SDG의 글로벌 리빙랩’이라는 컨셉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었으며, 관련 체제나 주체의 준비 정도도 이 컨셉에 맞게 준비된 것은 아님

- 전문가자문회의에서 이 방안은 현실에서 “두, 세 걸음 앞서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었음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은 시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됨
 - 이 방안은 지금까지 아산만권이 중화권과의 교역 강화를 통해 성장한 역사적 동인을 포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지향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임
 - 전문가자문회의에서 이 방안은 현실에서 “반걸음 앞서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됨
 - 현 동아시아의 정세가 경색된 상황이므로 다소 도전적이며 시의성이 중간정도임
-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은 시의성이 높게 평가됨
 - 우리나라가 2013년 이래 저성장에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끈다는 컨셉의 시의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탄소중립은 물론이고 4차산업혁명의 상용화가 목전에 와 있으므로 ‘제조강국 코리아’의 핵심지역인 베이벨리에서 이 컨셉을 제기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④ 실현가능성 측면 비교

- 전반적 실현가능성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SDG의 글로벌 리빙랩’ 순으로 높게 평가됨
 -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은 사실상 국내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행사의 준비 및 초청연사 섭외 등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음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은 국제행사로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제행사의 준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됨
 - ‘SDG의 글로벌 리빙랩’은 글로벌 행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행사의 준비 및 초청연사 섭외가 가장 도전적임
-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은 컨셉, 연사, 세션 구성이 평범한 편으로, 관련 국제행사 준비의 난도가 낮음
 - 익숙한 주제와 행사 포맷으로 행사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며, 제한된 시간과 비용으로 국제행사를 만들어내기 쉬움
 - 다만 전반적 구성이 국회 토론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록 국제행사의 컨셉, 연사, 세션구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은 컨셉, 연사, 세션 구성이 중간 정도의 난도임
 - 컨셉, 연사, 세션 등이 일반적인 국제행사와 비교하여 제한된 시간과 비용으로 대응하기도 난도가 있음
 - 특히 연사 섭외 등은 상당한 난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⑤ 제 측면 비교 종합

- ‘SDG의 글로벌 리빙랩’은 파급력이 가장 크나, 시의성과 실현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글로벌 위상을 가장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컨셉의 혁신성이 탁월하여 파급력이 높게 나타남
 - 시의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특히 행사 준비과정에 전문 인력 투입과 시간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은 전반적으로 고른 평가를 받음
 - 합목적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에서 고른 평가를 받음
 -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은 시의성과 실현가능성이 크나, 파급력은 낮게 나타남
 -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현단계에 부합하며 준비과정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내행사와 유사하여 파급력에서 낮은 평가를 보임
- 집행주체의 판단을 통해 3가지 방안 중 택일하거나 절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세 방안은 이상형으로서 현실에서는 택일보다는 상호 절충이 불가피함
 - 집행 주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3가지 방안을 절충하여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

구분		방안1	방안2	방안3
컨셉		SDG의 글로벌 리빙랩	동아시아 미래산업 요람	대한민국 경제성장거점
국제심포지엄의 목표		글로벌 잠재적 관여자의 관심도 향상	프로젝트의 국내외 인지도 향상	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보
대상		글로벌 잠재적 관여자	제반 오피니언 리더	국내 정책결정 관련자
주요 연사		UN기관 또는 글로벌 금융기관 인사	저명 미래학자	국내외 저명 학자
세션 구성		①임팩트 펀드 ②대기업 ESG ③주요사업(대기업 참여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또는 창업생태계)	①에너지, 용수문제 비전 ②반도체, 모빌리티산업의 확장 ③대표 거점개발사업	①국가의제와 베이벨리 역할 ②베이벨리 특별법 ③유사 국외 사례(웨강아오대만구, 간사이 이노베이션)
비교	합목적성	중	상	중
	파급력	상	중	하
	시의성	하	중	상
	실현가능성	하	중	상

[참고 문헌]

새만금 국제포럼 2011 「동북아시아와 새만금」 자료집

전북, '2011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브레이크뉴스 전북판 - <https://j.breaknews.com/328>

전북발전연구원(2011) 이슈브리핑-새만금사업 20주년 기념 2011 새만금 국제 포럼 1부.

김홍원, 2019, “중국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과 전망”, KIEP기초자료(19-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KTDC(2019. 2. 20),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KTDC, Statistics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ttps://research.hktdc.com/en/article/MzYzMDE5NzQ5>

[인터넷 사이트]

<https://www.city.kobe.lg.jp/a89323/press-iryosangyo/202402/466636010180.html>

<https://www.zeri.jp/cen/news/2024/01/24/3542/>

<https://www.intersectillinois.org/news/ev-industry-day-2024-recap-and-photos/>